

작은자공동체

The Least of These Church



일시: 2016 년 9 월 4 일 (주일) 오후 3 시

장소: Judson Memorial Church, Garden Room

모이는 곳: Garden Room, Judson Memorial Church

55 Washington Square South New York, NY 10012

함께하는 이들: 공동체가족과 김동균목사(Rev. Tong-Kyun Kim)

tongkyun@gmail.com / 917-622-2471

<http://www.judson.org/TheLeastofTheseChurch>

작은자공동체 예배순서

2016 년 9 월 4 일(주일) 오후 3 시

사회: 김동균 목사

묵상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 다함께

“전사 2” (시, 김남주 - 낭독: 김웅)

한 마음 한 노래 (이야기) ----- 다함께

“밥퍼주기 6 년, 민들레 국수집의 기적” (신문기사 - 낭독: 장동인)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 김동균 목사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3,21-38

화두: “현재의 나를 있게 한 사람들, 일들, 누구이고 무엇인가?.....”

한 마음 한 노래 (시) ----- 다함께

“너에게” (시, 정소승 - 낭독: 해나)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 다함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에” (복음성가 - 다함께)

사람 뜻 올리기(기도) ----- 다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전사 2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많은 사람이 실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수 천 명이 죽어갔다
수 만 명이 죽어갔다
아니 수백만 명이 다시 죽어갈지도 모른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세계도처에서 나라 곳곳에서
거리에서 공장에서 산악에서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어떤 사람은 투쟁의
초기단계에서 죽어갔다
경험의 부족과 스스로의 잘못으로
어떤 사람은 승리의
막바지에서 죽어갔다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죽어갔다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아내는 지하의 고문실에서
쥐도 모르게 새도 모르게 죽어갔다
감옥의 문턱에서
잡을 손도 없이 부를 이름도 없이 죽어갔다

그러나 보아다오 동지여!
피의 양분 없이 자유의 나무는 자라나지 않느니
보아다오 이 나무를
민족의 나무 해방의 나무 민족해방투쟁의 나무를
보아다오

이 나무를 키운 것은 이 나무를 이만큼이라도
키워낸 것은
그들이 흘리고 간 피이다 투쟁의 한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전투적으로 죽어가면서
그들이 흘리고 간 피이다
자기 시대를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자기 시대와 격정적으로 싸우고
자기와 시대와 더불어 사라지는데
기꺼이 동의 했던 사람들이다

오늘밤
또 하나의 별이
인간의 대지 위에 떨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해방 투쟁의 과정에서
자기 또한 죽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자기의 죽음이 헛되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다, 그가 흘린 한 방울 한 방울의 피는
어머니인 대지에 스며들어 언젠가
어느 날엔가
자유 나무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며
해방된 미래의 자식들은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가 흘린 피에 대해서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이다
마치 우리들이 갑오농민에 대해서 이야기 하듯.
마치 우리들이 한말의병에 대해서 이야기 하듯.

(시, 김남주 - 낭독: 김웅)

한 마음 한 노래 (이야기)

밥퍼주기 6년, 민들레 국수집의 기적

60㎡(18평)의 좁은 식당에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10여명이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요리사들이 음식을 만들어 뷔페식 반찬통에 담기 바빴다. 손님들의 식판에는 볶음김치, 계란말이, 김, 두부국 등 스스로 퍼 담은 반찬과 쌀밥이 수북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인천 동구 화수동 '민들레 국수집'의 풍경이었다. 이곳의 손님은 노숙자나 쪽방살이처럼 한끼 식사를 때울 곳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요리사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일반 복지시설의 무료 급식소와 비슷한 풍경이지만 다른 점도 많다. 우선 이곳은 정해진 식사시간이 없다. 문 여는 시간(오전 10시~오후 5시)에만 오면 언제든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식권도 없고, 줄을 설 필요도 없고, 신분 확인도 없다. 문 닫을 시간이 됐다고 다그치지도 않는다.

노숙자인 듯 다 해진 슬리퍼를 신고 온 한 남자에게 자원봉사자가 안내를 했다. "바로 옆에 작은 건물이 있거든요. 식사 끝내고 거기 가서 맞는 운동화 하나 신고 가세요." 작년 12월 지금의 공간을 월세로 얻기 전까지 식당으로 썼던 바로 옆 10㎡ 남짓한 낮은 건물에는 후원자들이 보내온 각종 옷가지와 신발, 수건, 치약 등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누구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300~400여명. 서울이나 충남 천안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도 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온다는 양모(59)씨는 "다른 무료급식소에 가면 사람들이 줄 서서 서로 먼저 먹겠다고 싸우고, 먹는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겐 '호텔'이라 했다.

민들레 국수집이 문을 연 것은 2003년 4월 1일. 모태신앙으로 천주교 수도사가 됐다가 47살에 수도원을 나와 평신도로 돌아온 서영남(徐英男·55) 대표가, 수도사 시절 만난 교도소 재소자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만든 것이다. "가난해도 기쁨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 재미있게 살고 싶어" 수도사를 그만뒀다는 그는 그때 수중에 있던 300만원으로 이 식당을 차렸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오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했다. 그러자 힘들기만 할 줄 알았던 이 집에서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 "선착순처럼 줄을 세우면 사람들이 난폭해져요. 그래서 서로 입장을 봐서 먼저 먹을 사람이 먹게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서로 더 약한 사람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식당 소문이 퍼지면서 여기저기서 '이름 없는' 후원자들이 나타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침이면 문도 열지 않은 식당 앞에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쌀 포대나 반찬, 과자 몇 봉지에 음료수가 놓여 있고, 전화로 또는 택배로 멀리 전라도에서까지 생선이며 쇠고기가 올라온다. 후원 계좌(농협 147-02-264772. 서영남)에는 한 달에 1500만~2000만원씩 쌓인다. 이 후원금은 급식소와 근처에 있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재소자 영치금 넣어주는 데 쓰인다.

서 대표는 "후원회 조직도, 명단도 없어 나도 후원자가 몇 명인지 모른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하나도 받지 않고 오로지 후원자들 도움으로 꾸려가고 있다"고 했다. 자원봉사자들도 서로 알아서 봉사를 오고, 어쩌다 사람이 부족하면 밥을 먹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봉사에 나선다고 했다. 작년에는 쌀이 남아 형편이 어려운 동네 사람들에게 20kg들이 1000포를 나눠주기까지 했다. 서 대표는 "시장에 장 보러 가면 콩나물 파는 노점상 할머니가 '오늘은 내가 기부한다'면서 콩나물 몇 상자를 내놓고, 식당에 왔던 노숙자가 휴지를 주워 판 돈을 내기도 하고, 회사에 다니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 스스로 하루를 비워 봉사를 오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배가 물에 빠졌을 때 힘없는 사람이 먼저 구명보트에 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는데, 될 것 같아요. 이 식당을 운영해보니 사람대접을 해주면 다음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스스로 열른 먹고 뒷사람 먹게 반찬도 알아서 적당히 먹고 그래요." 서 대표의 말을 뒤로하고 나올 때 굳이 배웅을 나온 자원봉사자 박대성(朴大成·53)씨가 말했다. "제가 이 집 첫 손님이었어요. 고아로 어렵게 살다가 자살하려고 9일을 굶었는데 서 수사님(서 대표를 이렇게 부른다)을 우연히 만났죠. 그분이 사 준 점심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여기서 수사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쓸 것이 부족해도 그걸 다른 사람한테 내주니까 내일 또 그것이 오더라는 것어요." ☎(032)764-8444

(신문기사 - 낭독: 장동인)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3,21-38

화두: "현재의 나를 있게 한 사람들, 일들, 누구이고 무엇인가?....."

일자: 2016년 9월 4일

3:21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홀연히 하늘이 열리며 3:22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그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수께서는 서른 살 가량 되어 전도하기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이 알기에는 그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며, 3:24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마땅, 레위, 멜기, 얀나이, 요셉, 3:25 마따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나깨, 3:26 마합, 마따디아, 시므이, 요섹, 요다, 3:27 요하난, 레사, 즈루빠벨, 스알디엘, 네리, 3:28 멜기, 아피, 고삼, 엘마담, 에르, 3:29 여호수아, 엘리엘, 요림, 마땅, 레위, 3:30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3:31 멜레아, 멘나, 마따다, 나단, 다윗, 3:32 이새, 오벳, 보아즈, 살몬, 나흐손, 3:33 암미나답,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3:34 야곱, 이사악, 아브라함, 데라, 나훔, 3:35 스룩, 르우, 벨렉, 에벨, 셀라, 3:36 케난, 아르박삿, 셈, 노아, 라멕, 3:37 므두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케난, 3:38 에노스, 셋, 아담,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께 이른다.

3:21 When all the people were being baptized, Jesus was baptized too. And as he was praying, heaven was opened 3:22 and the Holy Spirit descended on him in bodily form like a dove.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You are my Son, whom I love; with you I am well pleased."3:23 Now Jesus himself was about thirty years old when he began his ministry. He was the son, so it was thought, of Joseph, the son of Heli, 3:24 the son of Matthat, the son of Levi, the son of Melki, the son of Jannai, the son of Joseph, 3:25 the son of Mattathias, the son of Amos, the son of Nahum, the son of Esli, the son of Naggai, 3:26 the son of Maath, the son of Mattathias, the son of Semein, the son of Josech, the son of Joda, 3:27 the son of Joanan, the son of Rhesa, the son of Zerubbabel, the son of Shealtiel, the son of Neri, 3:28 the son of Melki, the son of Addi, the son of Cosam, the son of Elmadam, the son of Er, 3:29 the son of Joshua, the son of Eliezer, the son of Jorim, the son of Matthat, the son of Levi, 3:30 the son of Simeon, the son of Judah, the son of Joseph, the son of Jonam, the son of Eliakim, 3:31 the son of Melea, the son of Menna, the son of Mattatha, the son of Nathan, the son of David, 3:32 the son of Jesse, the son of Obed, the son of Boaz, the son of Salmon, the son of Nahshon,3:33 the son of Amminadab, the son of Ram, the son of Hezron, the son of Perez, the son of Judah,3:34 the son of Jacob, the son of Isaac, the son of Abraham, the son of Terah, the son of Nahor, 3:35 the son of Serug, the son of Reu, the son of Peleg, the son of Eber, the son of Shelah,3:36 the son of Cainan, the son of Arphaxad, the son of Shem, the son of Noah, the son of Lamech,3:37 the son of Methuselah, the son of Enoch, the son of Jared, the son of Mahalalel, the son of Kenan,3:38 the son of Enosh, the son of Seth, the son of Adam, the son of God.

한 마음 한 노래 (시)

너에게

가을비 오는 날
나는 너의 우산이 되고 싶었다.
너의 빈 손을 잡고
가을비 내리는 들길을 걸으며
나는 한 송이 너의 들국화를 피우고 싶었다.

오직 살아야 한다고
바람 부는 곳으로 쓰러져야
쓰러지지 않는다고
차가운 담벼락에 기대 서서
홀로 울던 너의 흰 그림자

낙엽은 썩어서 너에게로 가고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는데
너는 지금 어느 곳
어느 사막 위를 걷고 잇는가

나는 오늘도
바람 부는 들녘에 서서
사라지지 않는 너의 지평선이 되고 싶었다.
사막 위에 피어난 들꽃이 되어
나는 너의 천국이 되고 싶었다.

(시, 정호승 - 낭독: 해나)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G C D7 G
 When it seems that you prayed till your strength is all gone and your
 Have the clouds 'round you gathered in the midst of a storm? Is your
 마음 들이 이 지 외 초 세 이 기 울 들 한 수 았 때 이 단 들 신

C D7 G
 tears fall like rain - drops all the da - y long Je - sus
 ship tossed and bat - tered? Are you weary and worn? Don't lose
 들 에 들 구 처 게 - 울 위 러 내 들 연 지 나 주 주 들 신

G7 F/G Am C
 cares and He knows just how much you can bear He'll speak your
 hope some - one's pray - ing for you this very day and peace be
 들 무 아 리 시 연 네 믿 어 한 의 아 마 시 들 그 대 들

D7 C/D Bm/D D7 G C/D
 name to some - one in the prayer
 still is alread on the way
 들 - 이 있 도 지 못 함 들 -

G C/G G B7/F#
 Some - one is pra - y - ing for you
 들 가 히 녀 - 위 대 하 위 해 -

Em A7 Am/D D7
 Some - one is pra - y - ing for you And when it
 들 군 가 기 - 도 하 네 내 가 들

G C B7 Em Cm/Eb
 seems you're all a - lone - - and your heart would break in two re - mem - ber
 들 외 로 와 서 - - 마 을 이 무 너 질 때 두 군 가

G C/D Bm/D D7 G
 some - one is pray - ing for you
 들 위 - 해 기 - 도 하 네 -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하느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가진 자들의 횡포와 착취가 만연하고
그것이 체제화되어 갖가지 악과 범죄가 만연하여 힘없는 이들은 무방비로 노출되고
그러한 악과 범죄에 피해자로, 방관자로, 가해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내 안에도 있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 자기중심적인 태도, 가식, 거짓, 질시,
욕심, 욕망, 교만, 악한생각 등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세상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슬프게 하지만,
때론 그런 내 자신과 세상의 모순을 무시하고 포기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느님,
그런 내 자신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내 자신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 내 자신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결국 하느님의 진리와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느님,

그러다 우리가 유혹과 욕심에, 때론 시련과 한계에 부딪혀 실패하거든
꺼져가며 연기 피우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불길을 다시 살리신다는
그런 당신의 사랑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힘을 주옵소서

우리 서로 간에, 또한 고난 속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며 필요한 것들을 서로 채워주고
보살핌의 수고를 기꺼이 하는 그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로가 삶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의 희망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뒤에는 우리 서로가 든든히 버티고 있음을,
그런 우리 뒤에는 하느님이 든든히 버티고 계심을,
그러한 든든함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힘있게 사랑하고 기쁘게 희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